‘형용사+着’의 문체적 · 의미적 특징
– 일음절 형용사를 중심으로

고영란*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형용사+着’의 문체적 특징
3. ‘형용사+着’의 의미적 특징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기존연구에 따르면 ‘着’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의 수는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다. 당장 필자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형용사+着’ 구조는 자주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 사용한 적은 더욱 없어서 구체적인 예문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着’를 포함한 중국어 상(相)표지에 관한 연구는 영어 상(相)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고, 따라서 중국어의 상표지 ‘着’를 논할 때도 ‘동사+着’ 구조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먼저, 그동안 한어어법 학자들이 제시한 상표지 ‘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자.

黎錦熙(1924)는 ‘着’는 지속(持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朱德熙(1982), 戴耀晶(1991), 石毓智(1992) 역시 ‘着’는 동작행위(動作行爲)와 상태(狀態)의 지속(持續)을 나타낸다며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王力(1943), 趙元任(1979), 呂叔湘(1980)은 ‘着’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方玉

* 동국대학교 국제학생센터 강사

www.kci.go.kr

淸(1992)은 '着'를 '着$_1$'과 '着$_2$'로 나누었는데, '着$_1$'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着$_2$'는 동사 뒤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렇듯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着'는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본고는 동작행위의 과정이 분명한 동사 뒤에 결합한 '着'는 '진행'을 나타내며, 순간성이나 상태성의 의미가 강한 동사나 형용사 뒤에 결합한 '着'는 '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1)]

(1) 外面下着蒙蒙細雨.(바깥에는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2) 牆上掛着一幅水墨畫.(벽에 수묵화가 걸려 있습니다.)
(3) 王軍輕輕地敲着門.(왕군이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문(1)은 현재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진행형을 의미하고, 예문(2)는 수묵화가 벽에 걸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문(3)의 '노크하는' 장면은 마치 비연속적인 동작처럼 느껴지지만 그 짧은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敲'라는 동사로 연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지 '着'와 결합하여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어의 형용사도 상표지 '了, 着, 過'를 취함으로써 동사와 동일한 활용체계를 구현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표지 '着'에 관한 논의는 동사의 범주로 치우쳐져 있었기에 앞으로는 중국어의 고유한 개별성에 맞추어 '형용사+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고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형용사+着' 구조는 일찍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지되기는 했다. 형용사가 상표지와 결합하면 동태성을 지니게 된다는 데에는 黎錦熙(1924), 呂叔湘(1956), 丁聲樹(1961) 등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했다. 그 중에서도 王力(1950, 1985:44)은 '他紅着臉'이라는 예문을 제시하였고, 張志公(1959:19-20) 역시 '着'를 언급하며, 형용사는 '着'와 결합하여 동태(動態)를 나타

1) 예문(1)-(2)는 呂叔湘(1999:666), 예문(3)은 戴耀晶(1997:85)에서 인용.

www.kci.go.kr

낸다고 하였다.[2] 하지만 그 이후로 여전히 '형용사+着' 구조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없었고, 21세기에 들어서야 이 현상에 주목한 듯하다.

劉麗華(2007)는 상표지 '着'에 관한 대외교학 연구에서 '형용사+着'의 형식적인 구조와 문법의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張白領(2009)은 '형용사+着' 구조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고 그 의미특징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賀民(2009)은 '형용사+着' 구조의 형식과 결합 형용사의 제약, 문법화, 문법기능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賀民은 '형용사+着' 구조를 넓게 인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周曉靜(2012)은 張白領과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였고, 양영매(2015)는 사전 분석을 통해 'A着VP' 형식을 만드는 형용사를 선별하고, 통사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형용사+着' 형식의 구체적인 예를 한 번 살펴보자.[3]

(4) 事實永遠和人願差着很大的一段距離.(사실은 언제나 사람의 기대와 크게 거리가 있습니다.)
(5) 囑咐方先生不要煮老了, 嫩着吃!(방 선생님에게 푹 익혀 드시지 말고, 연하게 드시도록 당부하십시오.)
(6) 你這麼喜歡我的包, 非要親着睡嗎?(이렇게도 내 가방을 좋아하는구나. 기어코 가까이 두고 자야겠느냐?)
(7) 大米就得鮮着吃!(쌀은 신선하게 먹어야 합니다.)

예문(4)-(7)을 통해서 보듯이 형용사 '差, 嫩, 親, 鮮'은 상표지 '着'와 결합이 가능하고, 그 형식과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예문(4)에서 '差着'는 비교문에서 술어로 사용된 경우이고, 예문(5)의 '嫩', 예문(6)의 '親'이나 예문(7)에서의 '鮮'은 상표지 '着'와 결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던 것과 달리 '着'를 취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동사+着' 구조에만 쏠려있었던 '着'에 대한 관심이 형용사의 범주로까지 확장된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단면적인

2) 高英蘭(2015:18) 참조.
3) 예문(4)-(5)는 北大語料庫, 예문(6)-(7)은 微博에서 인용.

www.kci.go.kr

문법의미나 통사적 특징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고, '동사+着' 구조를 바라보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형용사+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언어재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고는 말뭉치와 웨이보(微博)를 통해 수집한 언어재료(語料)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세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일음절 형용사는 의미가 분명하고 전형적인 형용사로 간주되므로[4] 상표지 '着'를 취할 수 있는 형용사를 일음절 형용사로 제한하여 정량화해보려고 한다. 둘째, '형용사+着' 형식이 구어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검증하고, 이 구조와 특정 문체와의 관련성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셋째, '형용사+着'가 나타내는 의미를 '상태의 지속'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좀 더 세분화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형용사+着' 구조가 형식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다양성이다. 일부는 문법화를 거쳐 상(相)을 나타내는 의미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쓰이고 있다. 'A+點兒', 'A+着呢', '別+A+着'가 여기에 속하는데, 본고는 이들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형용사+着'의 문체적 특징

1) '형용사+着'의 결합가능 정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표지 '着'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는 '了'나 '過'를 취할 수 있는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고,[5] '형용사+着' 형식을 포함하는 문장은 실제 말뭉치를 통한 검색에서도 용이하지 않았다. 말뭉치를 활용해 언

4) 朱德熙(1956)는 일음절 형용사는 전형적인 성질형용사이며, 이음절 형용사는 종종 상태형용사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이음절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에서 상태형용사로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하였다.

5) 李泉(1997)은 1360개의 형용사 중 '着'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3.38%라고 하였으며, 郭銳(2002:197)는 72%의 형용사가 '了, 着, 過'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중 '着'를 취할 수 형용사는 아주 적다고 하였다.

www.kci.go.kr

어를 분석하는 것이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생명을 이어나가는 언어의 유연성을 말뭉치는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서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賀民(2009)은 단음절 형용사 '早, 晚, 遲, 久, 長, 短, 肥, 瘦, 臭, 鹹, 淡, 香, 富, 窮, 狂, 牢, 強, 弱' 등을 상표지 '着'와 결합이 불가능한 형용사로 분류하였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형용사들은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표지 '着'와도 공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6]

(8) 天還早, 離見特使的時候還早着兩個多鍾頭. (날이 아직 이르네요. 특사를 뵈려면 아직 두 시간 넘게 남았습니다.)
(9) 這樣鹹着吃, 不膩, 味道好. (이렇게 간간하게 먹으니 안 느끼하고 맛이 좋습니다.)

양영매(20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現代漢語詞典』과 『漢語形容詞用法詞典』[7]에 수록된 형용사 중에서 'A着VP' 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를 선별하고, 그 문법적인 구조에 관하여 논하였지만 여기에는 '快, 淺, 凶, 親, 狂, 窮, 擠' 등 다수의 형용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말뭉치 및 웨이보를 통해 관찰해 본 결과, 이 형용사들은 모두 상표지 '着'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8]

(10) 你帶着翅膀, 淺着微笑, 讓我的心都融化了. (당신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옅은 미소를 띄고 있어 나의 마음을 이미 녹였습니다.)
(11) 2016窮着出來, 2017富着回家. (2016년에 가난하게 나와서 2017년에 부자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6) 예문(8)은 北大語料庫, 예문(9)는 微博에서 인용.
7) 『漢語形容詞用法詞典』에 수록된 형용사에는 상표지 '了, 着, 過'와의 결합가능 여부가 나타나 있지만 상표지를 취할 수 있는 다수의 형용사에 이러한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바이두(百度)나 웨이보(微博)를 통해 확인해보면 상표지 '過'나 '着'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가 90% 이상이다.
8) 예문(10)-(11)은 微博에서 인용.

www.kci.go.kr

예문(10)에서 '淺着微笑'나 예문(11)에서 '窮着出来', '富着回家'는 어감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동안은 '淺, 窮, 富'가 왜 상표지 '着'와 결합하지 못하는 형용사로 간주되어 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사고의 다양화로 인한 언어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좀 더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있게 하였고, 더 나아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신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소통채널인 '웨이보'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둘째, 언어연구 과정에서 사전이나 말뭉치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화된 방법이지만 이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구어적 어휘와 표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는 한편 말뭉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웨이보(微博)를 활용하여 언어재료(語料)를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범위에 포함한 형용사는 총 159개이다.[9)]

早, 晚, 遲, 久, 古, 長, 短, 薄, 瘦, 肥, 平, 正, 尖, 厚, 偏, 值, 彎, 歪, 整, 斜, 圓, 寬, 窄, 多, 少, 深, 淺, 重, 輕, 快, 慢, 矮, 大, 小, 遠, 近, 粗, 細, 高, 低, 紅, 黃, 白, 黑, 紫, 藍, 綠, 青, 冷, 熱, 涼, 慌, 忙, 乏, 硬, 軟, 光, 破, 壯, 狠, 苦, 辣, 臭, 鹹, 濃, 淡, 香, 烈, 嚴, 幹, 濕, 酥, 純, 陡, 醜, 滑, 渾, 精, 靜, 滿, 闊, 濫, 猛, 妙, 清, 全, 帥, 碎, 穩, 稀, 響, 凶, 雜, 冤, 廣, 傻, 真, 假, 好, 壞, 差, 慘, 淨, 笨, 蠢, 對, 鈍, 富, 窮, 賤, 嬌, 狂, 牢, 難, 強, 弱, 巧, 親, 邪, 新, 舊, 准, 俗, 順, 豔, 鮮, 怪, 野, 脹, 困, 痛, 饞, 勤, 懶, 歡, 熟, 亮, 暗, 緊, 松, 虛, 沉, 美, 空, 爛, 亂, 老, 嫩, 飽, 餓, 渴, 煩, 癢, 僵, 悶, 閑, 累, 急, 散

9) 賀民(2009)이 『現代漢語語義詞典』에서 선별한 165개의 단음절 형용사를 참고하였다. 이 중 '鼓', '透', '擠'는 동사, '足'는 부사로 주로 사용되며, '活, 死'는 형용사 용법으로 잘 쓰이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www.kci.go.kr

이상 나열된 형용사가 상표지 '着'와 결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북경대학교 현대한어 말뭉치를 통해서 검색을 하였고, 말뭉치에 존재하지 않는 '형용사+着'는 웨이보(微博)를 통해 결합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1〉 '형용사+着'의 결합가능 여부

	결합가능		결합 불가능[10]
출 처	말뭉치	웨이보	말뭉치 및 웨이보
개수(개)	95	53	11
	59.75	33.33	
백분율(%)	93.08		6.92

〈표1〉은 기존연구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표지 '着'와 공기할 수 있는 형용사는 소수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이 제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일음절 형용사 가운데 상표지 '着'를 취할 수 있는 형용사가 93%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매우 의외이며, 언어학계에서 '형용사+着' 구조의 중요성이 증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본고는 어떤 한 형용사가 '형용사+着' 형식으로 출현하는 빈도, 예를 들어 형용사 '好着'가 몇 번이나 출현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형용사 자체의 사용 빈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상표지 '着'와의 결합이 가능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 '형용사+着'와 특정 문체와의 관련성

문체란 글쓴이의 사상이나 개성이 글 전체나 부분에 나타나는 특색을 말하며,[11] 시대나 문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드러난다. 즉, 비슷한 내용의 문장

10) 古, 寬, 窄, 歡, 烈, 真, 假, 對, 嬌, 新, 怪
11) 우리말 큰 사전(1995).

www.kci.go.kr

일지라도 글이 쓰여진 시기, 글의 목적, 글쓴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독자에게 주는 느낌이나 인상이 다른 경우가 있다. 문체의 분류는 문장의 길이, 느낌, 운율, 문법, 어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장 보편적인 구어체와 문어체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周曉靜(2012)는 '형용사+着' 형식은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며,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 일음절 형용사가 이음절 형용사보다 이 구조에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음절 형용사는 일음절 형용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특징 등을 표현할 때 좀 더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술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구어에서 사용빈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周曉靜의 주장은 아마도 영어에서의 진행형 구문이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서 기인한 추측의 오류라고 여겨진다. 영어에는 이른바 진행형이라고 불리는 'be+~ing'의 형이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어 영어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진행형을 점점 빈번히 사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화체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한다. 미국 영어의 대화체에서는 진행형이 전체 동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약5%에 해당된다.[12] 이처럼 영어에서의 진행형은 동사의 범주에서만 가능한 형식으로 중국어는 이 점에서 영어와 다르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 상표지 '着'가 결합하는 형식은 중국어의 언어 특징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형용사+着' 형식이 특정 장르의 문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賀民(2009)은 『"A單+着"結構句法語義功能硏究』에서 "劉寧生(1985)은 '着'는 구어와 정론문보다 문학작품에서의 등장 비율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으며, "張旺熹・朱文文(2006)은 2000개의 예문 중 '형용사+着'에 해당하는 구조는 3.65%로 나타났으며, 86.75%가 '동사+着' 구조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참고로 한 賀民의 입장은 '구어에서는 사물을 묘사하는 표현이 적고, 정론문은 이치를 따지는 문

12) 김완산(1999:1) 인용.

www.kci.go.kr

체이므로 묘사성이 적다'는 것이다.[13]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묘사성이 짙은 '형용사+着' 형식은 구어와는 관련이 적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기에 본고는 구어교재에서 '형용사+着'의 출현 정도를 파악해보기로 했다.[14]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2〉『한어구어』 중 '형용사+着'의 출현 횟수[15]

	출현 횟수					
단 계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A + 着	0	0	0	0	0	1
V + 着	0	1	14	9	17	13

〈표2〉에서 보듯이 구어교재에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동사+着' 구조는 사용 빈도가 늘어나며, 3권부터는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예를 들면, '門口掛着公用電話的牌子(입구에 공중전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에서 '挂着-'나 '你可以走着去嘛(당신 걸어서 갈 수 있어요)'에서 '走着-'는 귀에 익숙한 표현들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용사+着' 구조는 전체 교재(6권:118) 내에서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다.

(12) "那我家來說吧, 早上大家都忙着去上班、上學....."(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말해보세요. 아침에 모두 바쁘게 출근하고, 학교에 가니.....)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형용사+着'가 구어, 특히 대화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면어와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13) 賀民(2009:55) 참조.
14) 'A+着呢' 형식은 3권에서 1회, 6권에서 2회 등장했지만 이것은 '강조'의 의미이지 상(相)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출현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15) 구어교재 내에서 'V+着'와 'A+着'의 출현 횟수는 아주 대조적이므로 'V+着'를 〈표2〉에 포함하였다.

www.kci.go.kr

본고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말뭉치에서 검색한 재료들의 출처를 확인해 보았다. 웨이보의 언어재료는 방대할 뿐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수량화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말뭉치 내의 언어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형용사+着'가 어떤 장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추정해보았다. 형용사 중에서도 도량 형용사 뒤에 상표지 '着'가 결합하는 예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으므로 이들의 출처를 먼저 파악하였고, 그 다음 사용빈도가 높아 쉽게 검색이 가능했던 '형용사+着'를 찾아 통계를 냈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형용사+着' 형식의 출처

	多着	少着	大着	小着	高着	低着	熱着	涼着	快着	好着
문학	33	7	25	9	21	2	12	5	12	2
전기	2		1	1						
신문	3						7			3
기타							2	2		

〈표3〉에서 보이는 것처럼 '형용사+着' 형식은 문학작품, 특히 소설 속에서 빈번히 출현하였다. 그 외에 전기라든지 신문, 잡지, 응용문에서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형용사+着' 형식이 구어보다는 서면어 문체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소설에는 대화문이 많이 포함되므로 완전한 서면어라고 단정짓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표2〉에서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대화체에서 '형용사+着'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서면어에 적합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형용사+着' 형식은 화자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관심 있는 특징만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는데, 작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 바로 이러한 특징과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형용사+着' 형식은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특정한 규제나 제약 없이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인 웨이보(微博)에서도 적지 않게 보인다. 이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에서 3인칭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해석해나가는 방식으로 이해

www.kci.go.kr

할 수 있으며, 소설에서 '형용사+着' 형식이 자주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형용사+着' 형식은 화자가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활동적 의사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서면어적 문체와 잘 어울린다. 게다가 '형용사+着'가 나타내는 사물의 성질이나 특징 등은 화자가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면어 중에서도 주관적 문체인 문학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다.

3. '형용사+着'의 의미적 특징

'형용사+着'가 나타내는 의미는 주류적 의미와 비주류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류적 의미는 주요하게 또는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말뭉치에서뿐만 아니라 웨이보에서도 검색이 용이한 '상태의 지속, 성질·속성의 부착, 정도의 심화, 과거~현재의 지속' 의미를 말한다. 비주류적 의미는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노사(老舍)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어져 말뭉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비교'의 의미를 가리킨다.

1) 주류적 의미

(1) 상태의 지속

石毓智(1991:90-91)는 상표지 '着'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동태성과 정태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태성과 정태성은 동사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走', '吹', '寻找' 등이 '着'와 공기하여 동태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들이 본래 동태성이 강한 동사이기 때문이며, '等', '坐', '站' 등이 '着'와 결합하여 정태성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 자체의 속성이 정태적인데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가 예로 제시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13) 小鳥在樹上歡蹦亂跳地唱着晨歌. (새가 나무 위에서 생기 있게 아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 黑板上寫着兩個醒目的大字. (칠판에 주의를 끄는 두 개의 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문(13)에서 '唱着'는 시작점과 종결점이 있는 동작이므로 시간적 속성이 분명한 동태적 동사로 볼 수 있고, 예문(14)에서 '寫着'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라는 의미의 정태적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작이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동태성과 정태성은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된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형용사+着' 형식이 나타내는 상태의 지속은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속성, 특징 등을 나타내는 말로, 일반적으로 정태적이라고 받아들여진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16]

(15) 這里天气比較熱, 都不知道吃什么菜好了. (이 곳의 날씨는 더운 편이라 무슨 음식을 먹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문(15)에서 '熱'는 날씨의 상태를 진술하는 기능을 하는 술어이며, 문장 안에서 시간적 속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정태적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형용사 뒤에 상표지 '着'가 결합하는 예문을 보도록 하자.

(16) 木門不是一直壞着嗎? (나무문은 계속 고장나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문(16)에서 '着'는 '문이 고장나있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지속'이란 사건과정의 연속성을 말하며, '着'는 문장에서 의미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용사+着' 형식의 술어는 '一直', '仍然', '還'와 같은 지속을 의미하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기도 한다. 또

16) 예문(15)는 百度, 예문(16)은 微博에서 인용.

www.kci.go.kr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17]

(17) 既不能冷着, 又不能熱着. (차가워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됩니다.)
(18) 多次到家找他, 總說是忙着. (여러 번 집으로 그를 찾아갔지만 언제나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예문(17)에서 '冷着'나 '熱着'는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한 심리적인 지속을 의미한다. 예문(18)에서의 '忙着' 역시 심리적으로 느끼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그런데 예문(16)-(18)에서의 '壞着', '冷着', '熱着', '忙着'를 정태적 의미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들이 예문(15)에서 상표지 '着'를 취하지 않고 단독으로 술어로 쓰인 '熱'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형용사는 상표지를 취함으로써 잠재적인 동태성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형용사 자체는 시간적 속성과 무관해서 일반적으로 정태적이라고 말하지만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고착화된 상태나 성질이 아니어서 반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즉, 형용사 뒤에 상표지 '着'가 결합하는 순간 '형용사+着'는 시간적 속성을 부여받아 '상태의 지속'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태의 지속' 의미는 시간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 안에는 현재의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재적 동태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16)-(18)에서 문이 항상 '고장나있는', 음식이 '차갑거나 뜨거운', 그가 '바쁜' 상황은 정상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상태로 보아야 한다.

(2) 성질・속성의 부착

형용사란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고, 사물에 대하여 상태나 성질을 부여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동작행위를 수식하거나 신체부위를 묘사할 때의 '형용사+着'는 화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관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점을

17) 예문(17)-(18)은 北大語料庫에서 인용.

www.kci.go.kr

참고하여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동작행위의 성질

동작행위를 묘사하는 '형용사+着'는 뒤에 이어지는 동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부사어 기능을 한다. 이 때, 피수식어가 되는 동작동사는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식어 기능을 하는 '형용사+着'는 다소 모호한 의미일지라도 뒤에 이어지는 동작행위 동사와 결합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을 보도록 하자.[18]

(19) "快着告訴我們, 打的怎麼樣?" ("빨리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싸움 어떻게 됐어요?")
(20) 一個星期中, 她忙着准備東西, 收拾衣服和箱子. (한 주 동안 그녀는 바쁘게 물건을 준비하고, 옷과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21) "先慢着吃, 來喝酒呀!" (먼저 천천히 먹죠. 술 마십시다!)
(22) 我瘦着出來的, 我胖着回去. (나는 마른 채로 나와 뚱뚱해진 채로 돌아갔습니다.)

예문(19)-(22)에서 형용사 '快, 忙, 慢, 瘦, 胖'은 관찰이나 판단이 가능한 성질로, 우리는 주변 사람이 '빠른, 바쁜, 느린, 마른, 통통한' 상태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장은 접속사가 없으면서 중문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문(19)와 예문(20)은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어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상 동일하다. 즉, 예문(19)를 '打的怎麼樣, 快着告訴我們'이라고 말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문(21)에서 '慢着吃'와 '喝酒'는 시간상으로 선후관계에 놓인 두 가지의 동작을 나열한 것이고, 예문(22)도 문맥상 마른채로 나와서 뚱뚱해진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쓰면 원래 문장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형용사+着'는 안은 문장의 술어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9]

18) 예문(19)~(22)는 北大語料庫에서 인용.

www.kci.go.kr

(23) 爸爸吵着說他沒按時回家. (아버지는 그가 제때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떠들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문(19)-(23)을 살펴보면, 'A着+VP'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에서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심리적인 서술이 아니라 사실을 전제로 한 서술인 것이다. 이밖에 예문을 통해 살펴본 'A着+VP'는 다음과 같다.[20]

〈표4〉 'A着+VP'

'A着+VP'
淺着問, 深着問, 凶着說, 妙着說, 香着睡, 親着睡, 窮着過, 俗着過, 狂着吹, 强着吃, 嫩着吃, 鮮着吃, 野着吃, 凶着吃, 鹹着吃, 猛着喝, 純着看, 滑着做, 全着補, 遲着到, 帥着長大, 蠢着長大, 急着流動, 快着起來, 淺着微笑, 窮着出來, 富着回家, 痛着流淚,

'A着' 뒤에 이어지는 피수식어인 동작행위 동사는 사건의 과정이 존재하는 '問, 說, 睡, 過, 吹, 吃, 喝, 看, 做, 補, 到', '長大, 進去, 起來, 微笑, 出來, 流淚' 등이다. 이 가운데 '睡, 吃, 看, 過' 등이 자주 관찰되는 것은 '자고, 먹고, 보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② 신체부위의 속성

사물 명사를 묘사하는 '형용사+着'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명사구 'A着+NP' 뒤에는 문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술어가 이어진다. '형용사+着'가 수식하는 명사는 관찰자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얼굴 표정, 눈빛, 목소리를 통해 사람의 성격, 심리상태, 감정 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데, 특히 얼굴빛이나 눈빛을 묘사할 때에는 색깔 형용사가 확장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 예문을 보자.[21]

---

19) 예문(23)은 微博에서 인용.

20)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예문을 많이 수록하지 못했기에 단독으로 'A着VP'만 보면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妙着說'가 그러한 예 중의 하나로 '也許有時候話真的應該妙着說, 事應該巧着做'라는 문장은 문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의미적으로도 성립한다.

www.kci.go.kr

(24) 他扭過臉, 紅着眼要哭了. (그는 얼굴을 돌리고 붉어진 눈으로 울려고 했습니다.)
(25) 他們不可能就這樣厚着臉皮撤退的. (그들은 이렇게 두꺼운 얼굴로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형용사+着' 뒤에는 수량사와 결합한 명사가 이어지기도 한다. 아래의 경우가 그런 예이다.

(26) 他凶着一張臉進來說她沒按時回家. (그는 흉악한 얼굴로 들어와서 그녀가 제때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문(24)-(26)에서 보는 것처럼 'A着'가 묘사하는 신체부위 가운데 '얼굴과 눈'이 가장 많았다. 색깔 형용사 '黑, 紅, 白'는 감정이 실린 얼굴을 표현하고, '紅, 斜, 邪'와 같은 형용사는 눈빛이나 시선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 목소리의 톤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大, 小, 低, 粗'와 같은 형용사는 목소리의 느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어깨, 손가락, 머리카락, 몸, 배, 치아 등이 수식의 대상이 되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본 'A着+NP'는 다음과 같다.

〈표5〉 'A着+NP'

신체부위	'A着+NP'
얼굴, 눈	黑着臉, 苦着臉, 紅着臉, 白着臉色, 厚着臉皮, 薄着臉皮, 老着臉皮, 低着眼睛, 紅着眼, 斜着眼睛, 虛着眼睛, 邪着眼睛
목소리	大着聲量, 小着聲音, 低着聲音, 粗着嗓子, 軟着聲音
기타 신체부위	大着膽子, 歪着肩膀, 彎着手指, 濕着頭發, 僵着身子, 乏着身子, 餓着肚子, 稀着牙齒, 强着脖子, 歪着脚

21) 예문(24)-(26)은 微博에서 인용.

www.kci.go.kr

(3) 정도의 심화

형용사가 중첩되어 사용되면 그 의미가 강화되는 것처럼 'A着'를 반복하여 'A着A着' 형식으로 사용하면 '상태의 지속' 의미가 심화된다. 즉, 상태의 지속을 연장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화자이다. 따라서 'A着A着' 형식에는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시간이 개입된다고 보아야 한다.[22] 예문을 통해 보자.[23]

(27) 你可千萬不要晚睡, 晚着晚着就睡不着了. (당신 절대로 늦게 잠들지 마세요. 늦어지면 잠들지 못할 겁니다.)
(28) 愛, 久着久着就舊了. (사랑은 오래되면 식습니다.)
(29) 愛情啊, 濃着濃着就淡了, 眞正能過一輩子的是親情. (사랑의 감정은 깊어질수록 담담해집니다. 진정으로 한 평생을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족애입니다.)

예문(27)에서 '晚着晚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예문(28)의 '久着久着'와 예문(29)에서의 '濃着濃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지속되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한 것이다. 이상의 예문은 '형용사+着' 구조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일에 심리적인 시간을 부여하여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A着A着' 뒤에 '就VP了' 형식이 더해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A着A着' 형식을 만드는 형용사는 '早-晚', '富-窮', '濃-淡' 등의 반의어 관계에 놓인 형용사 중에서 문맥상 소극적인 의미의 형용사이다.

(4) 과거~현재의 지속

'형용사+着'는 때로는 이미 발생한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표

22) 심리적인 시간이란 물리적인 시간과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23) 예문(27)-(29)는 微博에서 인용.

www.kci.go.kr

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이다. 예문을 통해 보자.[24]

(30) 每次我都晚着好多.(매번 나는 많이 늦습니다.)
(31) 今年自己肥着20斤.(올해 나는 10kg이 쪘습니다.)

예문(30)에서 '好多'는 '늦다'라는 형용사 '晚'에 대한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고, 예문(31)에서 '20斤'은 '(살이) 찌다'라는 형용사 '肥'의 결과를 보충해주는 성분으로 볼 수 있다. 이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早-晚', '瘦-肥'과 같은 반의어 관계의 형용사 중 오른쪽에 놓이는 '晚'과 '肥'가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이른' 것보다 '늦은' 것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살이 빠진' 것보다 '찐' 상태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느끼기 쉬워서이다.

이상의 예문에서 주목할 점은 예문(30)에서의 '每次'와 예문(31)에서의 '今年'과 같은 부사어이다. 예문(30)에서 '每次'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번 늦어 왔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31)에서도 '今年'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문장 앞에 놓여서 '올 한 해 동안 몸무게가 10kg이 늘었다'라는 의미이다. 즉, '지속'의 의미는 '과거부터 화자의 발화시점'까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비주류적 의미

말뭉치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형용사+着'가 '비교'의 의미로 쓰인 문장들이 두드러지게 출현한다. 그러나 이 형식을 이루는 형용사는 도량 형용사라 일컬어지는 일부 형용사로 제한되어 있고,[25] 현재는 '大着, 小着, 高着, 低着'와 같은

24) 예문(30)-(31)은 微博에서 인용.
25) 陸儉明(1989)은 면적, 길이, 높이, 넓이, 중량 등 측정 가능한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量度形容词(도량 형용사)'라고 칭하였다. 이 용어는 학술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多, 少, 高, 低, 大, 小, 长, 短'과 같은 형용사를 '도량 형용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www.kci.go.kr

형식이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소수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형용사+着' 형식을 고찰할 때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출현 빈도가 높았기에 비주류적 의미로 분류하였다.

도량 형용사가 상표지 '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比'자 구조문과 동일한 형태로 구현되며, 술어 뒤에 '兩歲, 三個學生'과 같은 수량구를 취하는 구조도 비슷하다. 예문을 보도록 하자.[26]

(32) 孫科生於1891年, 比宋慶齡還大着兩歲. (손과는 1891년생이고, 송경령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33) 三姨太太就是這樣, 比女兒還小着一歲. (셋째 부인은 딸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예문(32)의 술어 '大'와 예문(33)에서의 술어 '小'는 모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도량 형용사이다. 나이는 가시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온 햇수로써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량구를 동반한다. 공간의 개념과 관련된 사물의 수량과 높이 등이 비교문에서 자주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일음절 형용사 중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형용사의 수는 '多, 少, 大, 小, 高, 低' 등으로 비교적 제한적인데, 이들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형용사 '高'를 예로 들어 보자.

- 연 속 성: 他個子很高. (그는 키가 큽니다.)
- 비연속성: 今天量身高, 40天高了兩厘米. (오늘 키를 재보니 40일 동안 2cm가 자랐습니다.)

'그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에서 '크다'는 그 의미의 그 폭이 아주 넓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0일 동안 2cm가 자랐다'라는 문장에서처럼 수량구 '2cm'를 취할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분명히 제한되므로 비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26) 예문(32)-(36)은 北大語料庫에서 인용.

www.kci.go.kr

그런데 도량 형용사가 '着'와 결합하여 비교문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문법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4) 小王娶了媳婦, 比他小着十歲. (小王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보다 열 살이 적습니다.)
(35) 他忽然想換班, 唯一的原因是我比他少着三個學生. (그가 갑자기 반을 바꾸고 싶어 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보다 세 명의 학생이 적어서입니다.)
(36) 他的身量比小蠍高着許多. (그의 키는 小蝎보다 많이 큽니다.)

예문(34)는 小王과 아내의 나이 차를 비교하는 것이고, 술어 뒤에는 정량 수량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문(35)도 나와 그의 학생 수를 비교하는 표현으로 술어 뒤에 수량 명사구가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문(36)에서는 그의 키를 小蝎와 비교하는 문장으로 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許多'가 더해졌다. 이상의 예문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형적인 '比'자 구조의 비교문으로 술어 뒤에 각각 다른 형식의 보어 성분이 결합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장들에서 '着'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며, 상표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문(34)와 같이 나이 차를 표현하는 비교문은 '她比他小兩歲'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着'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예문(35)-(36)도 마찬가지로 '着'는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해짐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문법을 전공하는 중국인의 입장에서도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으며, 보통 중국인들의 어감으로도 매끄럽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또한, 바이두(百度)와 웨이보(微博)와 같은 신매체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비교문에서 이러한 형식의 술어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는 왜 이 형식이 많이 검색이 되었을까? 여전히 이 점이 의문스러웠고, 〈표3〉에서 '형용사+着' 형식은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밝혀졌기에 혹시 '특정한 시대나 작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언어재료의 출처나 작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www.kci.go.kr

〈표6〉 작가별 문학작품에서의 '도량 형용사+着'의 출현[27]

A着 + C	출현 횟수		A着 + C	출현 횟수	
	老舍 작품	기타		老舍 작품	기타
大着 + C	19	7	小着 + C	6	4
多着 + C	30	8	少着 + C	6	1
高着 + C	21	0	低着 + C	3	0
계	70	15	계	15	5

〈표6〉에서 보듯이, 다른 기타 작품에 비해 노사(老舍)의 문학작품에서 '도량 형용사+着' 형식의 술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그의 작품 안에서 보이는 '도량 형용사+着'는 모두 '比'자 비교문의 술어로 사용되었으며, 뒤에는 보어 성분이 결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노사가 글을 쓸 때 '도량 형용사+着' 형식을 비교문의 술어로 즐겨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28] 현재는 '도량 형용사+着'가 비교문, 즉 '比'자 구조문에 사용되지 않고, 특정 지역의 방언에서 보이는 정도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보면, '도량 형용사+着' 형식이 술어로 사용되는 구조는 관습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着' 또한 문법적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표지로 보기는 어렵다.

4. 나오는 말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연구는 방대한 언어재료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본고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말뭉치 외에 웨이보(微博)의 언어재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형용사+着' 형식을

27) 〈표6〉에서 'C'는 예문(34)-(36)에서 보이는 '十歲, 三個學生, 很多'와 같은 보어 성분을 모두 포함한다.

28) 적극적인 형용사와 소극적인 형용사가 모두 '着'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주로 적극적인 의미의 형용사인 '大, 多, 高'가 비교문에서 술어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살펴보고자 한다.

www.kci.go.kr

고찰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159개의 일음절 형용사 중 93%가 상표지 '着'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형용사+着' 형식을 만들 수 있는 형용사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기존의 견해와 상반되는 결과로 웨이보라는 신매체가 없었다면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형용사+着'는 대화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문학작품, 특히 시간의 흐름 안에서 스토리를 생동감 있게 서술해나가는 소설에서 그 사용빈도가 높았다. 단방향적 의사표현이 가능한 웨이보에서 '형용사+着' 형식이 쓰이는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着'는 서면어 가운데 화자 중심의 주관성이 강한 문체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형용사+着' 형식을 의미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하였다. '형용사+着'가 주로 의미하는 것은 상태의 지속, 성질・속성의 부착, 정도의 심화, 과거~현재의 지속인데, 대부분 화자의 심리를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는 의미들이다. 이밖에 '도량 형용사+着' 형식이 비교문에서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문학작품 속에서 드러난 노사(老舍)의 개성적인 표현방식일 뿐 현재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본 연구는 구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형용사+着' 형식을 이상과 같이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 고찰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형용사의 상(相)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한다.

〈參考文獻〉

김완산, 『영어 진행형의 의미적 특성』,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양영매, 「현대중국어 'A着VP' 구조에 대한 통사 분석」, 『중국어문학』 69, 2015.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5.
북경대학, 『汉语口语(1~6권)』, 서울: 동양북스, 2012.

www.kci.go.kr

戴耀晶,「現代漢語表持續體的"着"語義分析」,『語言教學與研究』02, 1991.
戴耀晶,『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7.
方玉清,「動態動詞"了、着、過"的語義特征及其用法比較」,『漢語學習』01, 1992.
高英蘭,『現代漢語"形容詞+過"的結構研究』, 北京師範大學博士論文, 2015.
賀 民,『"A單+着"結構句法語義功能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論文, 2009.
李 泉,「現代漢語"形+動態助詞"考察」,『語言教學與研究』01, 1997.
劉月華,『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2001.
劉麗華,『動態助詞"着"的對外漢語教學研究』, 中南大學碩士論文, 2007.
陸儉明,「說量度形容詞」,『語言教學與研究』03, 1989.
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99.
石毓智,『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1.
石毓智,『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1.
王 力,『中國現代語法』, 北京: 中華書局, 1943(2014).
趙元任,『漢語口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1979.
周曉靜,「"A+着"結構的句法語義特征」07, 2012.
朱德熙,「現代漢語形容词研究」,『语言研究』01, 1956.
朱德熙,『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
北京大學現代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百度 http://www.baidu.com/
微博 http://weibo.com/login.php

〈中文提要〉

在语法学界，许多学者都充分关注动词后面带动态助词"着"的语法现象，却很少有人关注形容词带动态助词"着"的结构。本文以159个单音节形容词为研究对象，并在大规模语料库和新媒体中搜索到的语料的基础上进行统计，将其统计结果与已有的研究成果作比较。本研究得到了以下几个结论：

第一，到目前为止，一般被认为能带动态助词"着"的形容词很少，但是本文分析到的统计结果上显示93%的单音节形容词后面都能带动态助词"着"。

第二，"形容词+着"结构的使用多接近于书面语语体，比如，主观性比较强的语体，如'小说、微博'。这是因为主观性语体中可以用以"自我"为中心的视角来描写所有人和事物的动作

www.kci.go.kr

和状态。

第三，“形容词+着”在意义上可以分为两类：主流和非主流的意义。主流意义可以包括状态的持续、性质・属性的附着、强化语义程度、从过去到现在的持续；非主流的是仅限于“量度形容词+着”形式来表示比较意义。据本研究的观察，该结构在老舍的文学作品中出现的频率特别高，是一种被他独特运用到的形式，但当前它已几乎不被使用。

關鍵詞 : 動態助詞“着”, 單音節形容詞, “形容詞+着”, 潛在的動態性, “大着, 多着, 高着”

〈Abstract〉

The Stylistic and Semantic Features of “adjective+zhe” Structure: Focusing on the Character Adjective of the Single Syllable

Ko Young-ran

In academia of grammar, while verbs taking the aspect particle “zhe” have been studied by a lot of scholars, few people have paid attention to adjectives with the aspect particle “zhe”.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159 single syllable adjectives, the researcher tried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from the statistical data and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on the ba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large scale corpus and the new media.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ly, although the adjectives which take the aspect particle “zhe” have been generally little considered so far, the results in this study showed that 93% of monosyllabic adjectives can take the aspect particle “zhe”.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adjective+zhe” structure is more close to the written language style, such as novels or Weibo showing strong subjectivity. This is because the subjective style is often used as “self-centered speech” to describe the movement and the status of people or things.

Thirdly, “adjective+zhe” in the meaning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www.kci.go.kr

mainstream meaning and non-mainstream meaning. Mainstream meanings include the continuity of states, the attachment of properties and attributes, the strengthening of meanings, and the continuing meaning of the past from the present. *On the other hand, non-mainstream meaning is only limited to the "measure adjective+zhe" form* to indicate the comparative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hile the structure frequently appeared in the literary works of "Lao She", it rarely used at present.

Key Words: aspect particle "zhe", character adjective, "adjective+zhe", subjectivity, "da zhe, duo zhe, gao zhe"

이 논문은 2016년 10월 9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